

## 주간(晝間) 정신재활서비스 이용 효과 분석

최숙희<sup>1</sup>, 이기효<sup>2</sup>, 정용모<sup>3</sup>‡

<sup>1</sup>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 행복한집, <sup>2</sup>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sup>3</sup>인본의료재단

### Analysis on the Effect of Using the Daytim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Sook-Hee Choi<sup>1</sup>, Key-Hyo Lee<sup>2</sup>, Yong-Mo Jung<sup>3</sup>‡

<sup>1</sup>*Mentally Disabled Facilitie*

<sup>2</sup>*GSPH and Center for Health Care Strategic Management, Inje University*

<sup>3</sup>*Inbon Medical Corporation*

####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suggest the method for improving the effect of the mental health project by checking the influence of the "value and func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to the "satisfaction to current life of the mentally disabled" for the users of the daytim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to the current life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value and func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depending on the participation into the mental rehabilitation program.

With regard to the "satisfaction to the current life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current user members" and "consideration about himself in usual time" were the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out of the measuring factors for the "value and func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satisfaction to the current life of the mentally disabled", in case of participating 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out of the mental rehabilitation programs, the general "personal value and function which are felt by the mentally disabled" has higher significant difference in case of participating into the "social technology program", "daily life program",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leisure activity program" out of the mental rehabilitation programs than non participating.

---

**Key Words :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Satisfaction to Current Life of the Mentally Disabled, Value and Func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 I. 서론

정신장애는 뇌의 기능적 혹은 기질적 손상과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정신적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분열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기능적 정신질환, 정신지체와 노인성 치매와 같은 기질적 정신질환, 약물남용이나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건강의 손상 등 일상생활과 직업기능을 포함한 사회생활에 제한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1].

한영란[2]은 정신장애인을 자아가능이 붕괴되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및 자기관리를 할 수 없는 환자들로서, 자신을 재통합(reintegration)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즉,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발생되고, 기능장애로 인해서 개인의 능력이 저하되어 사회적으로 분리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정신장애는 치유불가능 또는 영구불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제약 초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은 질병이 만성화되면서 사회와 분리되어 고립됨으로써 다양한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요소들의 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양옥경[3]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한 개인이 자신의 치료나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자유, 자기결정권, 자율성, 존엄성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정신의 통합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재활효과에 대해 Booth[4]는 지역사회 정신보건프로그램의 재활 효과는 서비스의 다양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였으며, Hasenfeld[5]는 재활효과는 서비스 요소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

비스 요소가 전달되는 방식이나 환경이 재활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재활 효과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기술이 아니라, 정신보건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집단 의식이나 가치도 재활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재활효과에 관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재활효과의 측정변수로는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를 사용하였으며, 재활효과의 영향요인 변수들은 정신장애인의 집단의식과 가치, 서비스요소와 환경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은 서비스 요소 및 서비스 환경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는 정신장애인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효과는 서비스 요소뿐만 아니라 서비스 요소가 전달되는 방식이나 환경도 재활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귀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간(晝間, in the daytime) 정신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의 참여유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정신보건사업의 효과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들을 확인함과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의 낮병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3월 현재 부산지역에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정신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총 21개 정신

보건기관 및 시설(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낮병원 3개, 정신보건센터 8개, 사회복지시설 10개) 중 정신재활서비스의 이용회원이 없는 정신보건센터 1개를 제외한 20개의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낮병원 3개, 정신보건센터 7개, 사회복지시설 10개)의 이용자를 1차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주간 정신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자와 직접면담을 통하여, 인지적 능력을 보유한 294명을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직접 방문 대면조사에 의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대상자의 구성 및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성 및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개인 특성	성별	남자	177	60.2
		여자	117	39.8
	연령	29세 이하	43	14.6
		30-39세	105	35.7
		40-49세	107	36.4
		50세 이상	39	13.3
가족동거	동거함	223	75.9	
	동거안함	71	24.1	
정신질환 종류	정신분열	229	77.9	
	정동장애 등	65	22.1	
현재 이용 시설	의료기관 낮병원	72	24.6	
	정신보건센터	62	21.1	
	사회복지시설	160	54.4	
이용 특성	현재 시설 이용기간	6개월 이하	94	32.0
		7-12개월 미만	47	16.0
	현재 프로그램 참여수	1년 이상	153	52.0
		1개	10	3.4
2개		28	9.5	
	3개	46	15.7	
	4개	52	17.7	
	5개	28	28.2	
	6개	25	25.5	
합계		294	100.0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남자 177명(60.2%), 여자 117명(39.8%)으로, 연령대는 20-29세 43명(14.6%), 30-39세 105명(35.7%), 40-49세 107명(36.4%), 50세 이상 39명(13.3%)이었다. 그리고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223명(75.9%), 동거하지 않는 경우 71명(24.1%)이었으며, 정신질환의 종류는 정신분열 229명(77.9%), 정동장애 등 65명(22.1%)이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160명(54.4%), 의료기관 낮병원 72명(24.5%),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62명(21.1%)으로, 현재 시설 이용기간은 6개월 이하인 경우 94명(32.0%), 7-12개월 미만인 경우 47명(16.0%), 1년 이상인 경우 153명(52.0%)이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참여수는 1개 참여 10명(3.4%), 2개 참여 28명(9.5%), 3개 참여 46명(15.7%), 4개 참여 52명(17.7%), 5개 참여 28명(28.2%), 6개 참여 25명(25.5%)이었다.

##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인지능력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측정단위는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의·식·주와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삶의 질로서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두고 양옥경[6]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Life Satisfaction Self-Rating Scale: LSRS)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시설 이용자 간의 인간관계의 밀접성을 의미하는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는 이환범·이수창 등[7]이 복지관의 프로그램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어느 정도 존중하고 인정하는가에 대한 의미인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Hudson이 개발한 Index of Self-esteem 을 이정숙·양옥경[8]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사회복지 개입모형 연구에서 번안 구성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본 연구대상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더라도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은 Segal & Aviram이 개발한 지역사회통합척도를 변소현[9], 김소임[10] 등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대상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을 측정하여 이용시설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을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 요인회전은 직교회전 방법 중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요인 선택은 요인적재량의 절대값이 0.6이상으로 설정하여, 어느 한 요인에 적재되지 못하거나

교차적재가 의심되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지수인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0.926 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 측정항목의 신뢰도 0.921, 현재 이용

회원 간의 관계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0.912,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측정항목 신뢰도는 0.822, 사회 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 측정항목 신뢰도는 0.896 이었다. 이러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요인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Cronbach' α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	.660	.104	.135	.317	.921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	.711	.077	.113	.268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	.717	.070	.129	.127	
	나는 요즈음 신체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687	.146	.130	.228	
	나는 요즈음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715	.151	.136	.259	
	나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만족한다	.624	.151	.198	.077	
	나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 만족한다	.640	.297	.157	.035	
	나는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만족한다	.712	-.012	.019	-.007	
	나는 현재 나의 생활비 지출정도에 만족한다	.688	-.045	.142	.089	
	나는 요즈음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720	.081	.157	.263	
나는 현재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718	.016	.197	.240		
나는 요즈음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687	.121	.176	.239		
현재 이용 회원 간의 관계	회원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97	.071	.816	.085	.912
	회원들은 나를 잘 도와준다	.240	.153	.807	.016	
	회원들은 나에게 따뜻하고 상냥하게 대해준다	.139	.121	.837	.091	
	회원들은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준다	.142	.101	.789	.087	
	회원들은 나를 격려해 준다	.193	.068	.831	.068	
	회원들은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185	-.017	.738	.242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245	.253	.213	.629	.822
	내가하는 일은 항상 옳다	.315	.086	.136	.726	
	나는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301	.130	.078	.777	
	나는 얼굴이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152	.010	.044	.707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말한다	.262	.186	.101	.628	
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	쇼핑센터나 백화점, 시장가서 물품 구입하기	.064	.792	.175	.127	.896
	커피숍이나 식당가서 음식 주문하기	.064	.867	.077	.088	
	집에서 음식 배달시켜 먹기	.053	.782	.038	.060	
	이용실이나 미용실 가서 머리하기	.124	.784	.109	.086	
	도서관 가서 책을 대출 받거나 도서관 이용하기	.097	.699	.018	.034	
	영화관 가서 원하는 영화표 끊어서 관람하기	.082	.779	.040	.060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140	.687	.048	.153	
고유값	9.947	3.717	2.919	1.658	전체신뢰도 : .926	
누적 적재값 %		60.806				

#### 4. 연구가설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재활 또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수희[11]는 정신장애인의 개인적 변인(통찰, 정신장애인의 희망, 임파워먼트)과 사회환경적 변인(사회적 지지, 재활프로그램 참여정도)를 변수로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찰 중의 통찰유무와 증상인지도, 희망(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 질병에 대한 희망과 낙관),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향숙[12]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사회 재활 간호프로그램(대인관계훈련, 오락 및 치료레크레이션, 자가간호 훈련, 예술요법, 질병지식교육) 실시결과, 자가간호수행, 지각된 대인관계, 임상증상 개선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질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사회성과 질병지식 향상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의 참여유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

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는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 연구결과

#### 1. 기초통계량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사회참여 용이성이 대한 생각)은 <표 3>과 같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시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2.83점(의료기관 낮병원 2.77점, 정신보건센터 2.76점, 사회복지시설 2.88점)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

측정요인변수	의료기관 낮병원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지 시설	전체 평균	F(p)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	2.77±0.95	2.76±0.89	2.88±0.94	2.83±0.93	.574(.674)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	3.39±0.69	3.51±0.84	3.52±0.74	3.48±0.75	.822(.441)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2.71±0.83	2.82±0.95	2.90±0.96	2.84±0.93	.998(.370)
	사회참여 용이성 생각	3.36±0.99	3.44±1.06	3.48±0.92	3.44±0.97	.346(.708)
	전반적인 개인의 가치와 기능	3.16±0.59	3.26±0.72	3.30±0.64	3.26±0.65	1.244(.290)

주1) 평균(표준편차)

주2) 측정단위: Likert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그리고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전반적으로 3.26점(의료기관 낮병동 3.16점, 정신보건센터 3.26점, 사회복지시설 3.30점)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을 측정요인변수별로 살펴보면,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는 3.48점(의료기관 낮병동 3.39점, 정신보건센터 3.51점, 사회복지시설 3.52점),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은 2.84점(의료기관 낮병동 2.71점, 정신보건센터 2.82점, 사회복지시설 2.90점), 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은 3.38점(의료기관 낮병동 3.36점, 정신보건센터 3.44점, 사회복지시설 3.48점)이었으며, 측정요인변수별로도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2. 가설검증

### 1) 연구가설 1의 검증

연구가설 1의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

에는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정신장애인의 가치 및 기능(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개인특성과 주간 정신재활서비스 이용특성을 독립변수,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가치 및 기능의 하위변수 중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와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의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는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개인특성과 주간 정신재활서비스 이용특성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 4>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 영향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p)
	B	표준오차		
상수	.189	.328		.576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	.297	.063	.240	4.747***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473	.051	.472	9.345***
사회참여용이성에 대한 생각	.064	.048	.066	1.328
현재 이용기간	.069	.038	.085	1.819
현재 참여 프로그램 수	.012	.031	.019	.399
성별	-.009	.089	-.005	-.104
연령	-.019	.050	-.018	-.377
가족동거유무	-.127	.104	-.058	-1.212

R<sup>2</sup> = .414 F(p) : 25.214\*\*\*

주1) \* p<.05, \*\* p<.01, \*\*\* p<.001

## 2) 연구가설 2의 검증

연구가설 2의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주간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정신재활 프로그램 종류 중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정신재활 프로그램 종류 중 사회기술 프로그램·일상생활 프로그램·직업재활 프로그램·여가활동 프로그램에서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의 측정요인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는 일상생활 프로그램·직업재활 프로그램·가족 프로그램,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은 약물 및 증상관리 프로그램·여가활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은 사회기술 프로그램·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표 5>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차이

주간 정신재활 프로그램 종류	참여유무	n (294)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가치와 기능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	전반적인 가치와 기능
약물 및 증상관리 프로그램	참여	247	2.83±0.91	3.51±0.74	2.89±0.93	3.45±0.98	3.28±0.65
	참여안함	47	2.83±1.02	3.36±0.78	2.55±0.87	3.39±0.90	3.10±0.61
	t(p)		-.022	1.226	2.311*	.443	1.802
사회기술 프로그램	참여	233	2.88±0.95	3.53±.69	2.88±0.96	3.51±0.97	3.31±0.65
	참여안함	61	2.64±0.83	3.30±.93	2.68±0.76	3.21±0.94	3.06±0.61
	t(p)		1.855	1.800	1.698	2.168*	2.624**
일상생활 프로그램	참여	198	2.90±0.93	3.56±0.72	2.89±0.95	3.51±0.93	3.32±0.64
	참여안함	96	2.69±0.92	3.34±0.79	2.72±0.87	3.31±1.03	3.12±0.65
	t(p)		1.798	2.345*	1.532	1.609	2.455*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199	2.93±0.92	3.57±0.73	2.91±0.91	3.53±0.96	3.33±0.65
	참여안함	95	2.63±0.92	3.31±0.77	2.69±0.95	3.26±0.97	3.09±0.62
	t(p)		2.664**	2.724**	1.886	2.226*	3.086**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	262	2.85±0.93	3.50±0.77	2.88±0.91	3.47±0.95	3.28±0.64
	참여안함	32	2.65±0.90	3.34±0.91	2.51±0.99	3.24±1.07	3.03±0.63
	t(p)		1.184	1.127	2.154*	1.255	2.104*
가족 프로그램	참여	137	2.95	3.60±0.73	2.89±0.92	3.41±0.98	3.30±0.65
	참여안함	157	2.73	3.38±0.76	2.79±0.93	3.47±0.96	3.22±0.65
	t(p)		2.061*	2.556*	.842	-.526	1.121

주1) \* p<.05, \*\* p<.01, \*\*\* p<.001

주2) 측정단위: Likert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따라서 연구가설 2의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 IV. 고찰 및 결론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잦은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들을 확인함과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현재 부산지역의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20개(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낮병원 3개, 정신보건센터 7개, 사회복지시설 10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이용자 294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의 참여유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2.83점이었고, 이용하는 시설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전반적으로 3.26점이었고, 측정요인변수 따라

서는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 3.48점,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2.84점, 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 3.38점이었으며, 이들은 이용하는 시설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주간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의 측정요인변수 중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와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개인특성과 주간 정신재활서비스 이용특성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정신재활 프로그램 종류 중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은 정신재활 프로그램 종류 중 사회기술 프로그램·일상생활 프로그램·직업재활 프로그램·여가활동 프로그램에서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개인의 가치 및 기능의 측정요인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달랐는데,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는 일상생활 프로그램·직업재활 프로그램·가족 프로그램,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은 약물 및 증상 관리 프로그램·여가활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용이성에 대한 생각은 사회기술 프로그램·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김연수[13]와 강옥경[14]은 제공되는 서비스 내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신장애인

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진향[15]은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용표[16]는 정신장애인이 참여한 재활프로그램의 종류와 재활프로그램 참여횟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재활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즉,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나 질은 향상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 또는 질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현재 이용회원 간의 관계와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수희[11]는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장애인의 개인적 변인 중 희망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의 영향요인 중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태경[17]은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사회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활프로그램 실시전과 후의 비교 결과,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만족도, 자기표현행동이 재활프로그램 실시 후 실시 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정신재활 프로그램 종류별 참석 유무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정신장애인의 가치 및 기능을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참석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가치 및 기능의 측정 요인변수별로도 참석유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도 다르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부산지역에 한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유용

한 이론적 및 관리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2004),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pp.93-141.
2. 한영란(1998),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75-76.
3. 양옥경(2001),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출판, pp. 21-53.
4. Booth, M. E.(1993), Effect of program factors on client outcomes: Evaluation of three clubhouse programs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doctor dissertation.
5. Hasenfeld, Y.(1987), Power i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Vol.61(3):469-483.
6. 양옥경(1994),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Vol.24:157-198.
7. 이환범, 이수창(2005),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Vo.39(3):137-158.
8. 이정숙, 양옥경(199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임상사회복지 개입모형, 한국사회복지학, Vol.30:165-198.
9. 변소현(1998),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2-33, 80-86.
10. 김소임(1998), 낮병원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2, 86-89.
11. 이수희(2010),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복요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94-95.
12. 조향숙(2003),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일 정신사

- 회재활 간호프로그램의 효과, 고신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p.55-63.
13. 김연수(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  
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65-66.
  14. 강옥경(2001),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54-55.
  15. 이진향(2005), 지역사회 정신보건프로그램이 정신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p.62.
  16. 이용표(2000), 지역사회 정신보건프로그램이 정신  
장애인의 재활효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pp.88-89
  17. 이태경(2008), 만성질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pp.44-46.

접수일자 2011년 5월 28일

심사일자 2011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9일